

전남 평준화 고교 선호도

최대 10배 이상 차이

1지방 185% 대 16%

전남의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최대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립고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경우 전통 명문 공립고교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시행중인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의 일반계 고교 배정 결과 목포고는 1지방 지원비율이 정원의 185%에 이른 반면 여수 B고는 16%에 그쳤다.

순천지역도 가장 선호도가 높

은 학교는 지원율이 148.7%(순천고), 기피 학교는 29.3%로 5배 정도 차이가 났다.

비선호 학교로 분류된 지원율 50% 이하 학교는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이 모두 2곳씩이다.

도 교육청은 이날 고입전형 합격자 8천748명을 27개 학교에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으로 배정했으며, 1지방에서 지원자가 정원을 넘기면 추첨을 하고 미달이면 그대로 배정했다.

1지방에서 희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7천147명 82.2%로 지난해 80%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도 교육청은 또 올해 처음 실시한 소년·소녀 가장 우선 배정제도를 통해 4명에게 혜택을 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등을 투입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면서 "내신비중이 커지는 대입제도의 추세를 고려하면 선호도가 다소 낮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효율적인 대입 공략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lucky@kwangju.co.kr

“한달에 5명이나...” 연쇄 살인 ‘경악’

시민들 끔찍한 범행에 “범인 얼굴 공개하라”



30일 경기도 화성 비봉C 도로 인근에서 경찰들이 군포살해범 강호순에 의해 희생된 부녀자 배모씨의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군포 여대생 살해범 강호순(38)이 2년여에 걸쳐 7명의 부녀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전국이 ‘연쇄살인범’의 충격에 빠졌다.

특히 강호순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24일 사이에 무려 5명의 여성을 살해할 만큼 잔혹함을 보이고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년여간 부녀자 7명 무참히 살해=3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호순은 2006년 12월 14일 노래방 도우미 배모(당시 45세)씨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2년여간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았고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못하게 하고 있다. 그가 살해한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여대생 2명, 회사원·주부 1명 등으로, 20세의 대학생에서 52세의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 분포를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치안이 허술한 교외의 비정규직에서 납치된 뒤 살해당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강호순 소유의 수위시 당수동 축사와 인접한 화성 비봉면과 안산 사사동 등 일대에 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으며, 납치 후 하루를 넘기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강호순은 특히 배씨 살해 이후

2007년 1월 7일 여대생 연모(당시 20세)씨를 살해할 때까지 24일 사이에 모두 5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연씨 살해 후 2년이 지난 2008년 11월 9일과 12월 19일에도 주부와 여대생을 잇따라 납치·살해했다.

◇범행 공백 및 진짜 동기 밝혀야=경찰은 강호순이 5차례의 살인 이후 6, 7차 살인을 저지르며 조종했던 1년 10개월의 ‘공백’에 주목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중단했다고 보기는 앞서 저지른 범죄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가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진짜 동기를 밝히는 것도 경찰의 숙제로 남아있다. 그는 경찰에서 2005년 10월 처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네 번째 아내(당시 28세)와 장모(당시 60세)가 사망한 충격으로 여자들을 보면 살해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밝힌 범행 동기를 진실에서 우러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처가의 화재를 그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누리꾼 “얼굴 공개하라” 찬반 양론=강호순이 7명의 무고한 부녀자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호순의 살

인행각에 대한 충격은 물론이고 살인자의 얼굴 공개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아이디 ‘hkh3595’는 “법이 물러서 그대, 얼굴은 왜 안개주는거야”라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menhir’는 “사형도 아까운 놈이네-검찰은 구속해 여죄를 밝혀라”라는 글을 남겼다.

범죄분야 전문가들은 “지존과 유영철 사건에 이어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범죄가 또 한번 일어나고 말았다”고 개탄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CC(폐쇄회로)TV 확대 설치, 첨단 수사 지원 등을 주문했다.

니원침 (7716)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real estate and services.

예식장·공장건물서

불법 오락실 영업

광주북부경찰은 30일 예식장 건물에 불법 성인오락기 수십대를 놓고 영업을 한 양모(40·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북구 유동 6 예식장 건물 3층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알라딘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뒤 불법 영업을 해 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3개월 전 같은 건물에서 적발된 다른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오락실의 실제 소유자와 오락기 구입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광주시 북구 양산동 분촌공단 내 세탁공장 건물 1층 옛 식당점포를 개조,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를 들여놓고 영업을 해 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모(40·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생중계

○자신의 자위 행위 모습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수십여 차례나 생중계(?) 해온 10대 경찰에 달미.

○광주동부경찰은 30일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김모(17)양 등 4명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 등을 전송한 김모(19·완도군)군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15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양 등 4명의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90여회에 걸쳐 자위행위 장면을 일방적으로 전송해 온 혐의.

○경찰에서 김군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양 등은 “우연히 알려진 전화번호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끔찍한 회화를 봐야했다”며 처벌을 요구.

김중두기자 khh@kwangju.co.kr

‘학력위조’ 신정아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 변양군 징역 확정

대법원은 신정아(여·37) 전 동국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 박사학위(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신씨는 미국 캔자스대학 3학년 중퇴가 최종학력인데도 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3~2005년 이화여대 등의 시간강사, 동국대의 조교수로 임용되는 등 해당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07년 7월에는 허위이력서를 이용해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예술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씨가 이화여대 시간강사로 임용될 때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 제출했을 뿐이고 학교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은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이화여대

박순영 前 여수시부위원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여수시청 재산을 수산업자에게 무단으로 사용토록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절도)로 불구속 기소된 박순영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부의장이던 2006년 12월 20일 여수시 상수도사업소가 해안 매립공사를 위해 사들인 블록 70개(시가 1천400만원)를 평소 알고 지내던 수산업자에게 가져가도록 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지존과 유영철-정남규 이어 강호순 ‘충격’

■ 희대의 연쇄살인범

군포 여대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 강호순(38)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살종된 7명의 부녀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이후 다시 국민들을 잔혹 살인 범죄의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강 씨의 자백대로 그가 경기 서남부 지역 부녀자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존과 유영철-정남규

등으로 이어진 연쇄살인 범죄자 계보에 새로운 이름을 추가하게 된다. 강 씨의 범죄 내용을 보면 여러 면에서 21명의 부녀자와 노약자 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범행과 닮은꼴이다.

유영철이 아내와 이혼한 후 여성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범행을 시작했던 강호순은 아내가 죽은 뒤 여성들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것이나, 노래방 도우미를 범행 대

상으로 삼은 점에서도 비슷하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인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하고 시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해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희대의 살인마로 기록됐다.

유영철의 뒤를 이어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등장했다. 그는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전모(여·2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2004년 1월~2006년

4월 모두 25건의 강도상해,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연쇄 살인 사건은 1994년 추석 연휴에 터져 나온 ‘지존과 사건’이다. 김현양 등 조직원 6명은 1993년 7월 ‘지존과’를 결성, 사업가 부부를 납치 살해한 것을 비롯해 배신한 조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암매장하거나 불에 태웠다.

또 같은 해에는 부녀자 6명을 연쇄 납치하고 살해한 온보현 사건이 터져 사회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연합뉴스

포근한 주말·휴일

광주·전남 낮 최고 13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가운데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31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보이겠다”고 30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13도로 평년보다 5~7도가량 높게 예상된다.

휴일인 2월 1일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의 기온은 영하 2~영상 11도.

기상청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다음 주중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30일 남해서부 전해상에 발달된 풍랑주의보와 여수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도 31일 아침 모두 해제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굴비 판 돈 노리고 도박판

영광경찰, 20명 적발 3명 영장

설 연휴를 전후로 영광굴비를 팔아 판 돈을 노리고 이촌 마을에서 도박판을 벌인 남녀 도박단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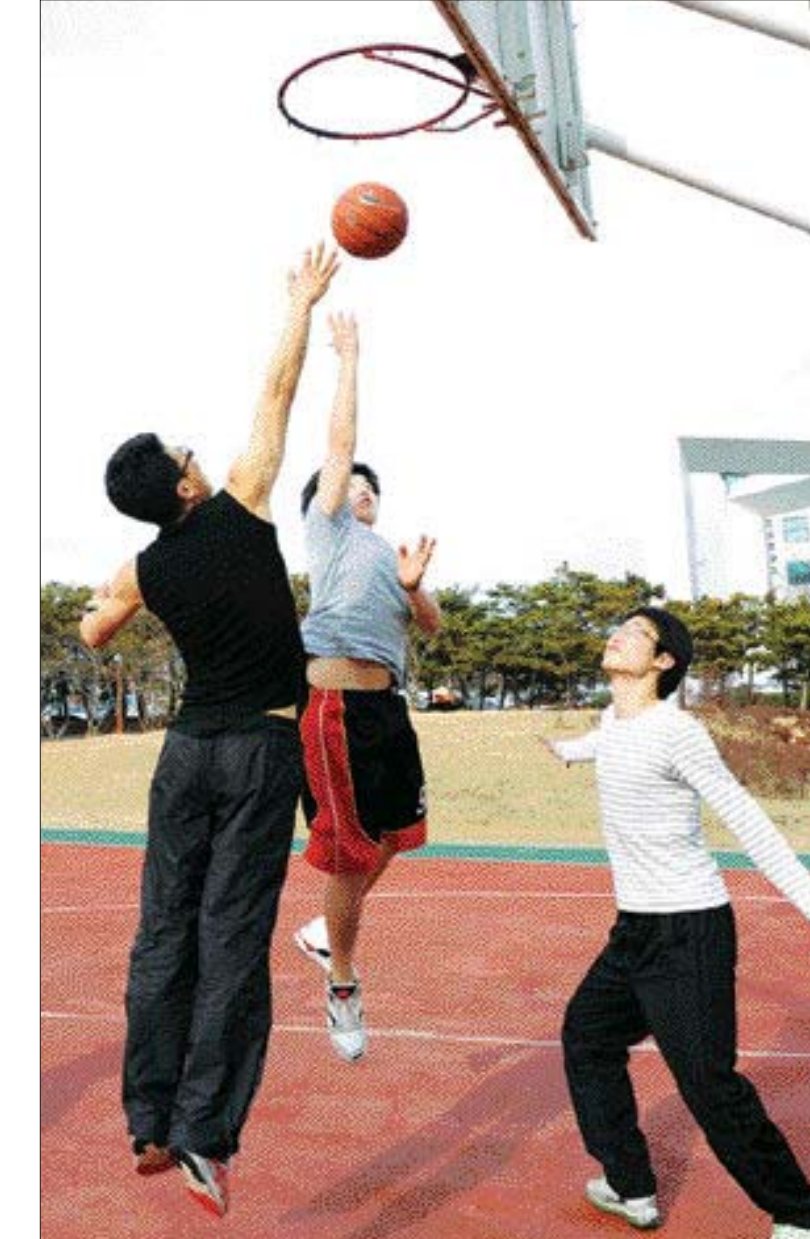
영광경찰은 30일 도박 등의 혐의로 서모(53·여)씨 등 20명을 적발,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여·52)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9일 밤 영광 법성포에 있는 서씨의 동생(여·51) 집에 모여 판돈 730만원을

놓고 속칭 ‘도리지고깡’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을 비롯해 광주, 신안, 목포, 화순 등에 거주하는 이들은 ‘큰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씨 집으로 모여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따뜻한 겨울 ‘반팔 농구’

입춘(2월 4일)을 닮아 앞둔 30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10도

가량 높은 14.3도를 기록하며 봄 날씨를 보였다. 조선대학교 캠퍼스 한 농구장에서 학생들이 반팔치림으로 농구를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today, including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conditions across various regions and a table of temperature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